

불교의 효정신 '산문 밖으로'

안성 도피안사-市문화원
금하효행상(金河孝行賞) 제정

9월2일 백중날
도피안사서 시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주민들에게 올 백중(9월 29일)은 특별한 날이다. 먼민 가운데 효행(孝行)이 모범되는 사람을 가려 상을 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상은 죽산면 도솔산에 위치한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안성시문화원(원장 최병찬)이 공동 제정한 '금하효행상(金河孝行賞)'.

1999년 2월 27일 원적에 든 공덕(功德) 스님의 법호를 따 명명된 이 상은 공덕 스님의 구국구세 이념과 효행 실천의 가르침을 세간에 확산하고자 하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의 원력으로 제정됐다.

꾸우보다 이 상의 수상자를 가리는 과정에 지역 유지들과 면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화제다.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김태원 씨를 운영위원장으로 금하효행상 운영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지난 6월 22일. 송근성 죽산면장, 윤용규 농협조합장, 이한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동주 안국회장(도피안사 안성신도회) 등 지역 인사 12명이 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 운영위원회는 우선 종교를 초월해 효행자를 선정하되 각 부락의 이장들이 추천하는 효행자를 면사무소에서 취합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 부락의 이장들은 수소문을 통해 효행자를 추천했다. 추천자들에게 1차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별된 효행자는 모두 6쌍의 부부들이었다.

지난 8월 4일 운영위원회는 도피안사에서 금하효행상의 첫 수상자를 가리는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뜨거웠다. 추천된 후보자들



◇한양대 김동화교수가 디자인한 상패

죽산면 주민 한마음 동참
지역인사 12명 운영위 구성
두달걸려 추천-심사-확정
'金河'는 故광덕스님 법호

의 효행을 놓고 우열을 따지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농촌 인심을 표현하는 말로 '누구네 집 순가락이 몇 개인지 인다'는 말이 있듯 운영위원들은 각자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의 효심을 평가하는 일이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긴 시간을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권남혁(56, 장원리) 씨 부부와 박노영(82, 대신리) 씨 부부가 가장 적임자라는 의견이 마지막까지 팽팽했다. 운영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 결국 당초 한 부부



◇도피안사와 안성문화원이 공동 제정한 금하효행상의 운영위원들이 도피안사에서 첫 수상자를 가리는 회의를 갖고 있다.

가 상을 주기로 한 운영위원회의 방침이 바뀌었다. 마지막까지 경합이 된 두 쌍의 부부에게 상을 주기로 한 것. 자칫 좋은 상을 두고 뒷말이 생긴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었지만, 지역 인사들이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를 버거워 하는 두 효행자들에게 더 이상 평가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송암스님의 의견이 '아름다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이다.

금하효행상의 첫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여름 내내 분주했던 죽산면의 유지들은 '이 상이 단순하게 지역 효자를 가리는 연중행사 아니라 전국의 사찰에서 불교의 효정신을 산문 밖으로 확산 시키는 계기

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 해는 첫 해라서 죽산면민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가렸지만 내년에는 안성시 전체에서 효행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상은 주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효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한마음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하효행상을 제정한 송암 스님도 금하효행상 안성지역의 효숙제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전국의 불자들이 효행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금하효행상의 상금은 1백만 원. 그러나 상금보다 더욱 큰일을 끄는 것은 상패다. 한양대학교 김동화 교수가 디자인한 상패는 백결이형으로 만들

어졌으며 동판에 이 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위 분은 아버지의 높은 은혜를 크게 깨달

아 세간삼이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 섬기기를 다하여 우리 인간 세상에 효의 생명질서를 한층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인간의 본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효행은 바로 금하공덕 선사의 구국구세 사상을 이룸이며 효성(孝性) 목련존자의 원행을 같이 한 해와 달처럼 우뚝한 일입니다. 이에 삼가 조상님 보은공경의 백중날에 항토제원이 중지를 모아 추천한 귀하께 이 패를 드려 오래도록 그 효행을 기리며 영세토록 그 덕행을 천천히 잊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성 기율이 가문과 후손의 영장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상식은 9월 2일 오전 10시 백중절 법회가 열리는 도피안사 대법당에서 열린다. 도피안사는 이날 법회가 지역의 효도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31-676-8700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첫 수상자들

박노영씨 부부-“내부모 모시는데 무슨 상”
권남혁씨 부부-80세 노모 지극정성 공경

"내가 내 부모를 모시는데 무슨 상이냐."
박노영(82, 대신리)씨는 자신에게 상이 주어진다 것을 부끄러워했다. 94세의 부친은 귀가 먹어 아무 소리도 들지 못하고, 80세의 노모는 허반신 불구여서 대소변을 방안에서 받아 내야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은 박씨 부부를 주변 사람들은 타고 난 효자라고 칭송한다. 무엇보다 박씨 가족이 효자란 칭송을 듣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4대가 한 지붕아래 살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님을 지극히 모시는 박씨의 인품이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 박씨의 부인이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 내듯 그의 며느리도 시할머니의 대소변 받아 내는 일을 꺼리지 않는다.
권남혁(56, 장원리)씨 부부는 가난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홀로 계시는 80세 노모를 '황후마마'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권씨의 부인은 단순노무자로 매일 공장을 나가 일을 하지만 매일 사흘을 찾아가 시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박노영씨(앞줄 좌측)는 노부모를 모시며 아들·손자들과 단란하게 살고 있다.



◇80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권남혁씨

백중과 효

음력 7월 보름날을 백중(百中 百衆) 또는 우란분절(盂蘭盆節), 백중(百種), 중원(中元)이라 부른다. 백중은 부처님오신날·출가·열반·성도제일제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로 꼽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란분절이 불교적인 의미가 강한 이름이다.

우란분절은 죽은 사람이 사후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제사의식을 만들어 조상의 넋에 공양하는 것으로 부모의 자양자애(養愛)한 은혜를 갚는다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우란분절》에 따르면,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인 신봉제일 목련존자가 아귀도(鐵鬼道)에 떨어진 어머니의 괴로움을 구하려고 행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이후 조상의 영혼을 공양하는 법회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불자들은 지금도 백중이 되면 선방부모 등 영가를 위해 천도재를 지내며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그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지극정성을 올리고 있다. 백중은 농경사회의 풍습과 불교의 효정신이 만난 뜻 깊은 날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단호박떡



1950년 3월 8일, 이승만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우장훈 박사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명성황후를 직접 시해한 우범선이 그의 아버지다. 일본 호산무관학교출신으로 갑신정변 당시 김옥균의 심복이던 우범선은 당시 명성황후가 러시아공사 위베르를 등에 업고 정권 재창출을 꾀하자 일본 공사 미우라의 사주를 받

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앞장선다. 일본으로 도망쳐 숨어 살던 우범선은 일본 여인 사가이 나카와 결혼해 육종학(肉種學)의 세계적 권위자인 우장훈 박사(1898?1959)를 낳았다.

우박사가 5살 때, 그의 아버지 우범선은 조선 왕실에서 보낸 자객 고영근(高永根)에 의해 암살되었고, 박

비타민C 풍부한 영양식

사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온갖 현대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경도제국대학의 강사직을 마다하고 지능 분석(Genome Analysis)과 종의 합성에 의한 처녀생식 개발 등 세계적 육종학자로 명성을 떨친 우장훈 박사의 어린 시절은 그토록 불우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5년간을 일본의 장법사(長法寺)에서 아버지 우범선의 죄를 빌며 조국의 비참한 농업을 자신이 이끌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발원하며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다.

한국에서 들은 호박 종자로 호박밭을 일구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호박떡을 만들어 매일같이 부처님 전에 올렸다.
마침내 고국에 돌아온 다음날, 부산 범어사를 참배할 때 특별히 부탁한 음식도 호박떡이었고, 씨감자 종자 때문에 대관령을 자주 오르던 때도 월정사에 들러 아버지 죄값을 참회하는 불공에는 꼭 호박떡을 올리곤 했다.
■ 약선식 연구가, <신세계 가만 특별한식단이었다>(문예의서자

만드는 법(1~2인분)

단호박, 멥쌀, 거피쌀, 계피가루, 밤, 볶은 소금
① 단호박은 씨를 털고 찜통에 찌서 속을 긁어낸다. ② 충분히 찜통에 단호박을 썰어 소금간을 해서 찌는 후, 체에 내린다. ③ 거피쌀은 삶아서 찜통에 내려 계피가루를 섞어 둔다. ④ 찜통에 찜통을 깔고 위의 재료에 찜통과 밤을 얹어서 찜는다.
효능 ① <본초강목>에 의하면 호박은 속을 보하고 기(氣)를 증강시킨다. ② 잘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C가 풍부한 영양식이며, 특히 호박씨에는 머리를 좋게 하는 레시틴과 무기질, 비타민B군이 많다.

